

##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 개발 연구\*

손 영 미†

명지대학교

김 효 창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부부성생활의 갈등과 불만족 요인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상호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함께 구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상호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공구성(共構成)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능력 요인을 측정하는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과 기능적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선 개방형 설문, FGI, 문헌조사 등을 통해 상호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공구성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능력 요인으로는 성적 자기의 인식, 성적 자기의 표현, 성생활 갈등 해결 능력, 성적 의사소통 능력, 성신념의 5개 요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5개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작한 후, 이것의 잠재요인의 수와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총 4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제 1요인은 성적 자기 탐색 능력 요인, 제 2요인은 성적 자기 인식 요인, 제 3요인은 성신념 요인, 제 4요인은 성생활 갈등 해결능력 요인이었다. 이들의 총 설명변량은 41.09%였다.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 관련 척도와 성행동을 성지수 척도와 상관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성지수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라 하겠다. 성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 관련 척도에 대한 성행동과 성지수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성지수가 성행동에 비해 설명변량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지수의 기능적 효율성을 검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지수 척도는 실제 부부 성생활 갈등에 대한 연구영역과 상담분야에 자료로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성생활 갈등 및 불만족을 진단·치료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생활, 성관계, 성행위, 성생활 만족, 성적 자기, 성적 스크립트, 성적 의사소통, 성신념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05)의 일부를 요약 및 확장한 것임

† 교신저자 : 손영미, 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E-mail : shonym@hanmail.net, Tel : 02-300-0884

성관계는 종족번식이라는 생물학적 이유에 더해 신체적 즐거움과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부부관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김원희, 1995; 이인숙, 문정순, 2000; Giddens, 2001). James와 Wilson(1986)의 연구에 의하면, 성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울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생활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결혼만족도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문혜숙, 1993, 재인용). 이윤수(1998)의 연구에서도 부부간 성생활이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0%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결혼관계에서 성은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연, 유영주, 2002).

그렇다면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무엇인가? 많은 연구들은 성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왔으며, 그 결과 다양한 성생활만족도 척도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김혜선, 2008; 서선영, 최혜경, 2004). 이들을 정리해보면, 성생활 만족도 관련 요인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sup>1)</sup>, 첫 번째

요인은 오르가즘, 체위, 테크닉, 애무, 성관계 시간과 횟수 등과 같은 ‘성행동 측면’들로, 이들은 성생활 만족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이경옥, 김영희 2003; 유은희, 1974; 장순복, 강희선, 김숙남, 1998; Kirkpartrick, 1980, Strong & DeValult, 1994). 상당수의 연구가 성행동이 성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보고하고 있는데, 남성은 육체적인 접촉과 반응이 더 중요한 반면, 여성의 경우, 성관계 횟수나 오르가즘과 같은 신체적인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이 성생활 만족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한다(김효현, 1996; 이인숙, 문정순, 2000; Bridges, Lease, & Ellison, 2004; Cox, 1990; Leigh, 1989). 두 번째 요인은 즐거움/재미, 만족감, 성적 박탈감, 신뢰감과 같은 ‘긍정적·부정적 정서경험’이다. Hatfield, Yraupmann, Lamhert(1982)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성생활에 대해 더욱 만족스러워하며, 성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정서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숙남, 장순복, 강희선, 1997; 김효현, 1996; 이경옥, 김영희, 2003). 세 번째 요인은 배우자의 성만족도 지각, 성적 의사소통, 성적 일치도, 민감성과 같은 부부간 상호작용 측면이다. 성생활의 즐거움은 배우자 쌍방이 서로 원할 때 높으며(Wallin & Clark, 1963), 배우자가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용하려고 할 때 성생활 만족도가 높다(장순복 외, 1998). 성적 의사소통과 성생활 만족·불만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성적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부부들일수록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정애, 2004; 김요완, 2001; 남영주, 옥선화, 김지애, 2006; 이영실, 1989; Byers & Demmons,

1) 본 연구자는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과 관련된 기존 척도를 분석·이해하기 위해 ‘sexually-related measures: A Compendium(Davis, Yarber, Daveis, 1988)’를 리뷰하여, 성생활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측정된 척도들을 선별하였으며, 그 밖에 ISS(Index of Sexual Satisfaction)와 DSFI(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 한국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성생활 만족·불만족 척도들을 선별하였다. 이후, 이 척도들에 포함된 문항들을 내용분석을 통해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었음

1998; Ferroni & Taffee, 1997). Herold와 Way (1998)에 따르면, 성적인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성관계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줌으로써 둘 간의 정서적 밀착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배우자와의 성일치도를 높이고, 성관계 빈도 등과 같은 성행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넷째, 성관계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신념, 성지식과 같은 성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다. 성에 대한 태도와 성생활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결혼생활에 있어 성관계는 중요한 부분으로, 노력을 통해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수록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문홍세, 1989; 이인숙, 문정순, 2000). 다섯째 요인은 발기와 불감증, 질건조증 같은 성기능 측면이다. 성기능은 부부 성생활에 중요한 측면으로,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oddridge, 1987; Greenblat, 1983; Jasso, 1985; Marsiglio & Donnelly, 1991). Kinsberg(2002)는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질건조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Kinsberg, 2002; Sarrel & Whitehead, 1985), 남성은 발기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Ackerman & Carey, 1995; Ard, 1977). 이경옥과 김영희(2003)는 성기능과 성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관계 빈도에는 남편의 성기능이, 성관계 지속시간에는 아내와 남편의 성기능이, 오르가즘 빈도에는 아내의 성기능과 성지식이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여섯째 요인은 성적 각성정도, 성격, 성태도, 성지식 정도, 자존감, 가치관 등과 같은 개별적 심리특성으로, 많은

연구들은 이들 특성에 따라 성생활 만족도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영기, 한성열, 한민, 2008; 김임영, 2002; Abramson & Mosher, 1975; Barnes, Malamuth, & Check, 1984; Heaven, Fitzpatrick, Craig, & Kelly, 2000; Hendreck & Hendreck 1987; Shafer, 2001; Snyder, Dimpson, & Gangestad, 1986). 마지막으로 성생활 방해요인이 있다. 성적 매력에 대한 지각, 아이들, 임신가능성 등도 성생활 만족과 관련 있다. 예컨대, Donnelly(1993)는 임신은 성생활 만족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아이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아이가 어릴수록 부적 상관계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부부의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와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들은 현재까지 부부의 성생활을 진단하는 근거 및 도구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나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이들 척도는 부부간의 만족스러운 성행위가 다양할 수 있음을 무시한 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바람직한 성행위 유형을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 부부의 성생활 만족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한 성행위 유형은 부부마다 동일하지 않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서 부부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들만의 성행위를 탐색하고, 발견하며, 조율하는 상호작용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성생활 만족 척도들은 이와 같은 부부 상호작용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기존의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들은 부부의 성생활 상태 및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설명력이 높지만, 보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제시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예컨대, 정서경험에 대한 문항을 측정함으로써 성생활이 지루하고, 배우자가 지나치게 성적인 요구를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성관계 속에서 부부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행동에 대한 문항 측정을 통해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배우자가 성행위시 거칠고 난폭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부부간 성생활 만족 정도(상태)에 대한 평면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개선하고, 즐겁고 행복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셋째, 성생활은 부부간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수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며, 파트너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부간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기존의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들은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의 원인이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부부간 성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나는 배우자가 너무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느낀다’, ‘내가 성관계를 원할 때 배우자는 원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나의 성적 요구와 욕망에 대해 민감하다’, ‘남편은 나의 성적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등과 같이 성생활과 관련한 자신의 행동과 심리(정서, 욕구 등)평가보다 배우자의 성행동에 대한 평가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가

갖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성생활 불만족과 성적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개입적인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부의 심리적 능력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이론적 배경

성생활 만족과 성적 스크립트 이론(Sexual Script Theory)

성생활은 부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상호만족적인 성생활의 유형은 부부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는 부부마다 서로의 욕구가 다르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싫어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에게 맞는 성행위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성행동을 하고, 성기능이 어떠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다른 성적 자기를 어떻게 맞춰가는 지가 더욱 중요하다(MacNeil & Byer, 1997). 그런 측면에서 성적 스크립트 이론은 서로 다른 성적 자기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성행위 절차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크립트란 사회적 삶 속에서 행동이 생산/발생되는 과정을 개념화시키기 위한 상징체계이다. 즉, 정형화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일어

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도식적 지식으로, 사람들은 스크립트에 따라 행위를 하게 되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이정모 외, 1999). 성적 스크립트는 어떤 성행동을 할 것인지, 들어오는 성적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며, 어떤 정서 및 인지경험을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성적 표상체계로 성행위 절차에 관한 도식이라 할 수 있다(Jones & Hostler, 2001). 성적 스크립트(성생활의 절차)는 부부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부부가 맺는 성생활의 절차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일련의 성행위 과정이 공식화된 것이 성적 스크립트이다.

Jones와 Hostler(2002)는 색다른 성적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한 성생활이 개인의 주관적인 성생활 경험의 폭을 확장시키며, 행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이론은 성생활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행동, 성기능, 정서경험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 간에 적합한(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행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부부 상호작용과정) 속에서 부부가 함께 구성한 둘만의 성적 스크립트가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부부간에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성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서로의 신체적·정서적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둘만의 성행위 절차에 관한 도식(성적 스크립트)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은 폐쇄적, 비상호작용적, 비상호만족적이며,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성행위 절차에 관한 도식(폐쇄적 성적 스크립트)에 따라 성관계를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상호만족적이며, 부부특수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것이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에 직결되는 요인이라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이와 같은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능력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상호만족적 성적 스크립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성적 자기(sexual self)

자기(self)란 개인이 갖고 있는 내면적, 외현적 특성 자체와 그에 대한 자기의 관념을 포함한 것으로 지속성과 순간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보다 역동적인 개념이다(한규석, 2002). 이 정의 속에는 크게 2가지의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행위를 하는 주체(작위자)로서의 자기(self as an agent)와 지식구조로서의 자기(self as a knowledge structure)가 그것이다. 이를 성적 자기(sexual self)와 접목시키면, 성적 자기는 성행위를 하는 주체로서의 자기와 성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구조로서의 자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전자는 성적 욕구를 지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며, 성관계를 능동적으로 해석·재구성하려는 주체를 의미한다. 반면, 후자는 자신의 내면적, 외현적인 성적 특성 예컨대, 성적 욕구 정도, 선호/비선호 자극, 민감한 성감대 및 성감대 자극방법, 선호하는 체위, 성적 욕구 유발자극, 자신의 신체 등에 대한 자기 개념(지식)을 의미한다(Garcia, 1999; Garcia & Carrigan, 1998).

사회에서 부여된 것이 아닌 자신만의 주체적인 성적 자기를 스스로 구성해내고, 명료화시키는 것은 부부성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

제이다. 먼저, 주체적이지 못한 성적 자기는 성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릇된 행동들을 합리화시켜 자신의 성적 자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홍성목, 2000). 부부성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암묵적 강요에 의한 성행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한쪽 배우자가 성적 욕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행위(계속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잠을 자지 않고 들락날락거리든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 혹은 애정이 식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마치못해 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암묵적 강요에 의해 성행위를 하게 된 당사자는 외현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합의에 의한 성행위와 내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정서를 조화롭게 수용하기 위해 외현적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성적 자기를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둘째, 주체적이지 못한 성적 자기는 위험한 성행위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Breakwell & Millward, 1997). 자신의 성적 자기에 위협이 되는 성행위는 바람직한 부부성생활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행위를 할지의 여부에 대해 부부 쌍방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임신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갖기 원할 경우, 성적 자기가 명료한 사람은 그 행위가 자신의 성적 자기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명시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Breakwell & Millward, 1997). 셋째, 주체적인 성적 자기는 자신을 표현하고, 배우자와의 성적 탐험 과정을 이끈다(Conrad & Milburn, 2001; McKenna, Green & Smith, 2001). 성생활을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관습에서 기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주체적인 성적 자기의 형성을 저해하고, 자신의 성적 자기를 표현하고, 이를 탐험하는 과정을 방해한다(McKenna, Green & Smith, 2001). 주체적인 성적 자기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물려받은 관습적 성인식의 수준을 넘어서 배우자와의 상호작용과 개인 내적인 성찰과 평가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성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이를 개발시키기 위해 탐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Conrad & Milburn, 2001). 마지막으로, 주체적이고 명료한 성적 자기를 갖는 것이 쌍방간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킴으로써 상호간 심리적·감각적(신체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성적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성적인 특성과 성과 관련된 제반 행동 및 취향 등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person's understanding)를 의미한다(Conrad & Milburn, 2001). 이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배우자에게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으며, 배우자의 성적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호간 성적 자기의 조율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Byer & Demmons, 1999).

자신의 성적 자기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적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물학적인 요인들을 아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성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는 문화적 신념을 넘어서, 자신의 진실한 성적 욕망을 발견하고, 배우자와 자신의 진정한 성적 자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서로의 성적 자기를 탐색하여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간 상호만족적·고유한 성적 스크립트의 형성과 성생활 갈등의 해결을 통해 심리적·신체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작점이 된다(홍성목, 2000; Boston Globe, 2001).

### 상호만족적 성적 스크립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성적 의사소통

성적 의사소통이란 언어적/비언어적 표현방식을 통해 성에 대한 서로의 사고와 감정을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적 스크립트를 조율하는 과정으로,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서로의 성적 자기를 노출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위, 신체적 감각, 성적인 어려움, 성적 절정, 성적 욕구, 관심과 흥미, 욕망, 좋아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 동기, 성적 기쁨 등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성적 특성과 성관계로 인한 심리적 경험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ell, 1997).

둘째, 성적 자기의 이해를 통한 성적 스크립트의 변화 및 수정 과정이다(Herold & Way, 1988). 부부가 성적인 즐거움을 통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형성해야 한다(Byers, Demmons, & Lawrance, 1998). 이를 위해서는 성적 자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협상과 타협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의 성적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성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성적 자기 및 성 가치관의 형성은 사회문화적 관습과 대인상호작용 과정 그리고 개인 내적 평가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소지한 문화권의 경우, 뒤의 두 과정은 부재한 채 사회·문화적 관습에 의해서만 주로 배양됨으로써 성적 자기가 사회가 바라보는 성역할 고

정관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Jones & Hostler, 2002). 같은 맥락에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를 성역할 고정관념과 사회적 인습의 창을 통해 바라본다. 이러한 것들은 배우자의 성적 자기를 이해하는 데 치명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상대 배우자에게 표현했을 경우 ‘여자가 성을 너무 밝힌다, 조신하지 못하게...’, 혹은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하고... 여자같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배우자의 성적 노출을 차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적 의사소통의 마지막 단계는 위에 기술된 일련의 과정을 통한 심리적 접합정도의 변화이다. 인간관계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심리적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권석만, 2003). 성관계 역시 인간관계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상호간 의사소통의 질에 따라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성적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부여한 성관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준해 성적 스크립트를 형성하게 된다면, 끈끈한 심리적 접합은 이루어질 수 없고, 두 사람의 성적 자기는 왜곡되고, 성생활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적 활동이 되기 쉽다. 반면 서로의 성적 자기에 대한 표현과 이해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성적 자기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고유한 성적 스크립트를 형성하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은 더욱 강해지며, 성적 자기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들은 성생활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서로의 성적 자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지금까지 성적 의사소통의 단계를 살펴보았다. 원활하고 개

방적인 의사소통은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성생활을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Ferroni & Taffee, 1997).

상호만족적 성적 스크립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성신념

남성은 성도착자이며, 여성은 성불감증자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시작해서 남성과 여성은 모든 측면에서 똑같다는 극단적인 관점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한 남녀차이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중요한 화두가 되어왔다(홍순정의, 2001). 그러나 활발한 논쟁과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성적으로 수동적이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Conrad & Milburn, 2001;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일반인들은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신념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 재구성 과정 없이 그대로 믿어버린다. 성신념들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 지식과 상치되는 신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성적 지식을 정확히 습득하지 못하면 사실과는 다른 그릇된 신념을 사실인 양 믿게 된다. 현대의 성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킨제이와 마스터즈, 존슨 역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성신념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였는데, 이와 같은 성신념(편견)들이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Tavris, 2001). 구체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신념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신념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신념과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 불편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마련이다(한규석, 2002).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성신념을 소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올바른 성신념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일반적인 성신념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성행위를 해석할 경우, 자칫하면 개인차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Conrad & Milburn, 2001).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 하나가 전체를 준거로 삼아 개인을 설명할 때, 개인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휘숙, 2002). 만일 개인차가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한다면 평균으로의 해석도 용인될 수 있지만, 개인차가 중요한 영역일 경우, 평균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큰 오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성생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 간에 이루어지는 성생활을 일반적인 성신념에 따라 꾸려나가고,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일반적인 성신념으로 해석·적용하려고 한다면, 둘 간의 성적 자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둘만의 성적 스크립트 구성을 방해받게 된다.

## 방법 및 절차

###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인천, 울산, 부산, 청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결



과, 총 402명(남: 214, 여: 186, 성별무기입: 2, 설문미회수: 598)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조사대상자 74명을 제외한 328명(남: 179명, 여: 148명, 성별무기입: 1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0세 미만 21.7%, 30대 43.0%, 40대 28.1%, 50대 6.7%로 평균 연령 37.5세이었다. 결혼기간은 36개월 미만이 30.5%, 37~120개월 27.4%, 121~240개월 19.8%, 241~360개월 20.7%, 361개월 이상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26.4개월로 나타났다.

####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의 제작 및 구성

#####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 구성을 위한 사전조사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문헌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먼저 국내의 성생활만족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성관련 척도의 모음서인 Sexuality-Related Measures에 제시되어 있는 성생활 만족과 관련이 있는 기존 척도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W. W. Hudson과 D. F. Harrison 그리고 P. C. Crosscup에 의해 만들어진 ISS(Index of Sexual Satisfaction)와 R. L. Derogatis와 N. Melisaratos가 개발한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과 성생활 만족과 관련된 문헌들에서 밝혀진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혼자 132명(남 69명, 여 64명)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sup>2)</sup>과 기혼자 12명(남

6명, 여 6명)을 대상으로 한 FGI<sup>3)</sup>를 통해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물리적/행동적 요인과 상호 만족적·부부 특수적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능력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상의 사전조사를 통해 상호만족적·부부 특수적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데 성적 자기의 인식, 성적 자기의 표현, 성생활 갈등해결능력, 올바른 의사소통, 성신념 등 5가지의 심리적 능력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탐색되었다. 이들 요인을 기초로, 대학에서 2년 이상 성과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3명이 성지수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총 65개의 문항이 완성되었다.

#####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의 문항구성 기준

성지수 척도의 문항은 크게 3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첫째, 문헌조사와 예비 연구를 통해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중요한 영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성적 욕구, 성적 욕구의 불일치 상황, 체위, 성감대, 성관계 동기, 성생활 방해 및 촉진 요인, 오르가즘, 성생활 의사소통, 성생활 신념 이상 9개의 영역이 선정되었다. 둘째, 이렇게 선정된 영역에 대한 심리적 능력 요인

성별과 연령만을 조사하였음. 기혼자 132명(남 69명, 여 6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남자 48.3세, 여자 43.1세이었음

3) FGI 참여대상자 특성: 평균결혼기간은 174.8개월, 평균 연령은 남자 46.7세, 여자 43.3세였음. 평균 성생활만족도 점수는 3.18로, 3.0미만의 대상자는 남자 1명, 여자 3명, 3.0에서 3.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대상자는 남자 3명, 여자 2명, 3.5점 이상을 받은 대상자는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었음

2) 개방형 설문 참여자 특성: 개방형 설문의 경우,

을 질문하였는데, 예컨대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 인식,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의 표현 및 탐색능력, 성생활 갈등 해결 능력, 의사소통 방식 및 유형, 성신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자신의 성적 행동과 성적 자기의 인식 정도 등을 물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인식정도와 이것들의 상호 교류 방법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질문이 구성되었는데, 예컨대,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등이다. 이처럼 한 이유는 상호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데 있어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영역을 발견하여,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능력을 더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개입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문항의 보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척도로 제시되었으며 두 번째 유형은 등간척도가 아닌 서열척도의 형태로 제시되었다<sup>4)</sup>. 본 연구자들은 서열척도를 등간척도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각각의 보기가 기존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도출되었기 때문이

다. 구체적으로 그 이론적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생활 갈등 상황에 직면 시 문제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부부가 서로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욕구와 배우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부만의 리추얼을 갖는 경우이다. 이것은 끊임없는 성적 상호작용을 통해 둘 간의 상호 만족적 성적 스크립트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호간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 하겠다(홍성목, 2000; Jones & Hostler, 2002). 또한 갈등상황에 처한 배우자의 감정과 생각을 읽고, 반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배우자의 성적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성적 욕구와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유형에 속한다(권석만, 2003; 유영주, 이창숙, 2002; Conrad & Milburn, 2001). 두 번째로 바람직한 유형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로, 성생활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표현하지 않고, 성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게 될 경우, 성생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김인자, 2003; 유영주, 이창숙, 2002).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방식이 아닌 우회적·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과 같은 회피적 방식을 택함으로써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갈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김정인, 2000). 세 번째로 바람직한 유형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배우자와의 욕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경우이다. 성생활은 작은 행위 하나 하나가 배우자뿐만 아니

4) 예컨대 당신보다 배우자가 먼저 오르가즘에 도달한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보기로 ① 나도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② 혼자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오르가즘에 도달한다, ③ 안거나 키스하는 것과 같은 후회를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④ 씻으러 가거나, 옷을 입는다(성관계를 끝낸다), ⑤ 배우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편잔을 준다 등의 5가지 예를 제시한다.

라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홍성묵, 2000; Conrad & Milburn, 2001). 이런 측면에서, 서로의 욕구가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바람만을 충족시키려는 행위는 배우자의 자존감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번째 유형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경우와 지속적인 요구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이다. 후자를 성학자들은 암묵적 강요라 지칭하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둘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심리적 강요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말츠는 이 같은 유형을 바람직하지 못한 성관계 중 폭력에 의한 성관계 다음으로 위험한 것으로 위치지음으로서 암묵적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개인의 자존감 및 성적 자기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홍성묵, 2000; Conrad & Milburn, 2001). 마지막 유형은 성생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이미 포기한 경우이다. 이는 자신과 배우자의 자존감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성생활을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폐쇄적·상호불만족적 성적 스크립트를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에 속한다(권석만, 2003, 김인자, 2003; 홍성묵, 2000; Conrad & Milburn, 2001).

다음으로 성적 자기의 탐색 및 개발에 있어 바람직성의 정도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능동적인 탐색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는 성적 자기의 탐색 및 개발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능동적인 탐색과 조율과정을 갖는 것이다. 이들 유형에 속하는 부부

들은 서로의 성적 자기에 대해 솔직하게 배우자에게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성적 자기를 공유하며,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부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성적 스크립트를 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Conrad & Milburn, 2001). 다음으로 바람직한 유형은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형으로, 성적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모색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를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이다. 부부특수적이고 상호 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를 알기 위해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에 대한 능동적인 탐색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동적 탐색보다 더 발전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김정인, 2000). 마지막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것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부 상호 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기본 조건은 성적 자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에 속한 부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부부 상호 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배정원, 2003; 홍성묵, 2000; Conrad & Milburn, 2001).

이상의 이론적 근거에 준해 구성된 이들 보기를 등간척도로 가정하여 분석한 두 번째 이유는 Kendall의 순위상관계수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순위상관계수 검증을 위해 인간관계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69

명(남: 31명, 여: 38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문항의 보기에 대해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 검증 결과, 모든 문항이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이 같은 서열성을 근거로 이들 보기에 대해 등간성을 간주하였다.

####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의 안면 및 내용 타당도 분석 및 문항의 이해용이성 평정

위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문항은 연구방법론 전문가 2인과 임상심리전문가 1인 그리고 부부성상담 전문가 1인에 의해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및 문항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재평가되었다. 그 결과 총 61개의 문항이 최종 선발되었다. 또한 심리학 개론과 성의 심리학을 수강하고 있는 기혼자 10인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절성, 문항에 대한 이해도 등을 검토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의 타당도와 기능적 효율성 평가를 위한 도구

#### 성생활 만족도 척도

Hudson(1981)이 개발한 25개 항목의 ISS(Index of Sexual Satisfaction)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국내에서 부부 성생활 만족도 및 성적 적응을 연구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척도로 배우자간의 성행동 빈도 및 성행동에 따른 정서경험, 선호도, 성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

수는 .87이었다.

#### 성생활 불만족도 척도

이영실(1989)이 부부의 성생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성생활 불만족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서구의 문헌 및 조사연구, 기존 성생활 만족도 척도를 정리하여 구성한 성생활 불만족도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생활 불만족의 변인으로 심리·사회·문화적 원인과 기질적 원인을 측정하고 있으며, 심리·사회·문화적 원인을 다시 대인관계적 측면, 개인적 측면 그리고 조건화된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생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96이었다.

#### 결혼 만족도

Roach, Frazier & Bowden(1991)이 개발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이 특정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를 대상으로 제작되었던 경우, 이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예컨대, '나는 언제나 나의 남편을 믿을 수 있다'라는 문항을 '나는 언제나 나의 배우자를 믿을 수 있다'라는 문항으로 수정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 부부의 사회적·심리적 동료감, 결혼생활의 어려운 문제,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부부의 합당한 태도,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5점)'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만

측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성생활 스트레스

전반적인 성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측정 척도들(김정희, 1987; 이종목, 1990; 김정인, 1997)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4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전반적인 성생활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은 ‘나는 배우자와의 성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성생활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이며, 신체적 증상을 묻는 문항은 ‘나는 성생활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한다’, 심리적 증상을 묻는 문항은 ‘나는 성생활 문제 때문에 우울하거나 화가 나는 경험을 한다’이다. 평가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5)’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 성행동

성지수와 성행동과의 상관을 살펴보고, 성생활 만족에 미치는 성지수와 성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성행동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 성관계 횟수, 성관계 횟수의 변화, 성관계 소요 시간, 성관계 시 사용하는 체위의 개수, 오르가즘 횟수, 1회의 성관계시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오르가즘의 횟수가 이에 해당한다.

### 조사절차

이상의 절차를 통해 구성된 도구는 우편을 통해 배포, 수거되었으며, 이를 위해 걸린 시

간은 총 3주이다(배포 1주, 수거 2주).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분이었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설문지 배포시 수신용 우편봉투와 동봉용 테이프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시켰으며, 익명성의 보장을 위해 발신자란에 연구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여 응답자들이 자신의 소속을 밝힐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 자료 분석

성지수를 구성하는 61문항이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변별도 등을 고려하는 문항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항분석을 통해 선별된 문항은 SPSS Window(10.0) 버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되었으며, Principle Component method와 Varimax Rotation method를 사용되었다. 성지수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성지수와 부부성생활 만족과 관련된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성지수의 효율적 기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지수와 성행동이 성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도 그리고 성생활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고유 설명량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는 바, 먼저 준거변인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로 연령과 결혼기간을 enter방식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는 성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 4개를 enter방식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성행동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성관계 횟수, 성관계 시간, 체위 수, 오르가즘 경험을 enter방식으로 투입하였다.

## 결 과

###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 요인 탐색 분석

#### 문항분석(Item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지수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검사하기 위해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평균과 문항-전체 상관 그리고 문항 변별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성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61개의 문항 중, 평균이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4.0 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인 8문항을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53개의 개별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개별 문항은 동일한 전체 구성개념의 하위 문항이므로 그것은 전체 문항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문항은 전체 구성개념을 적절히 측정하는 문항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2문항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문항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상, 하위 30%로 구분한 뒤 성지수 척도 문항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문항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a36번 문항(당신은 배우자가 성생활의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에 대해 얘기할 때 성적으로 무능하다고 느끼십니까?)과 a53번 문항(남자는 흥분이 되면 성적 욕구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선발된 49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 탐색적 요인분석

성지수의 구성요인으로서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고유근 1 이상인 것을 추출하였으며(Kaiser, 1958), 추출된 요인을 대상으로 scree plot(Cattell, 1976)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요인의 부하량과 문항들 간 상관을 고려하였는데, 각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30을 넘지 못하는 문항과 타 요인과의 부하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문항 15문항을 제거한 34문항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4개의 요인이 의미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표 1 참고). 이들 요인은 성지수 점수의 전체 변량 가운데 41.09%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하되는 성지수 문항을 선정하는 부하량을 .30이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요인에는 12개의 문항이 유의미한 부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항들은 ‘당신은 배우자의 성감대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기 위해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성감대를 배우자에게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등으로, 배우자와 자신의 성적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자신의 성적 자기를 배우자에게 알리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시키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 문항은 성적 자기를 탐색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성적 자기 탐색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전체 변량은 20.08%이다.

표 1. 상호구성적 성지수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a21 당신은 배우자의 성감대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758			
a13 당신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기 위해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744			
a29 당신은 배우자의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적 자극들(예: 분위기, 특별한 속옷, 와인 한 잔 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740			
a19 당신은 당신의 성감대를 배우자에게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736			
a11 당신은 배우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712			
a23 당신은 배우자에게 맞는 성감대 애무방법(예: 강약, 속도)을 찾기 위해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711			
a10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709			
a28 당신은 자신의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적 자극들(예: 분위기, 특별한 속옷, 와인 한잔 등)에 대해 배우자에게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704			
a18 당신은 자신의 민감한 성감대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611			
a2 당신은 성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섹스어필을 하십니까?	.495			
a14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체위를 배우자가 제안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440			
a39 배우자가 성생활에 대해 비난하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상한 경우, 당신은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314			
a17 당신은 자신의 신체 중 특히 어느 부분이 민감한 성감대인지 아십니까?	.692			
a3 당신은 배우자의 성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72			
a17 당신은 배우자의 신체 중 특히 어느 부분이 민감한 성감대인지 아십니까?	.327	.575		
a9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고 계십니까?	.560			
a4 당신은 배우자가 성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섹스어필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552			
a12 당신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를 알고 있습니까?	.368	.543		
a25 배우자가 성관계를 원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예: 성적 욕구 때문에,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 갈등 해결 등) 안다	.526			
a1 당신은 자신의 성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71			-.327
a46 외모와 만족스러운 성관계는 상관이 높다		.715		
a45 신체적 매력도와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상관이 높다		.634		
a58 남자는 여자를 리드해야 한다		.557		
a49 완벽한 성관계는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35		
a52 성경험이 많은 여자는 질이 늘어나서 험겁다		.523		
a51 성관계는 오래할수록 좋다		.520		
a48 즐거워하는 표시를 하면 웬지 밝히는 여자같다		.495		
a47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성적 욕구가 필요하다		.458		
a64 여자에 비해 남자의 성적 욕구가 더 강하다	-.224	.424		
a8 배우자에게 성관계의 거부의를 밝혀도 배우자가 여러 이유를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할 때 당신은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627
a15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체위를 배우자가 원할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619
a7 당신은 성관계를 원하지만 배우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569
a6 당신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는 원하는 경우, 당신은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554
a16 배우자가 좋아하지 않는 체위를 당신이 원할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550
Eigenvalues	6.83	3.26	2.13	1.78
설명변량	20.08	9.58	6.26	5.17
Cronbach's $\alpha$	.88	.77	.72	.60

제 2요인은 ‘당신은 자신의 신체 중 특히 어느 부분이 민감한 성감대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배우자의 성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배우자의 신체 중 특히 어느 부분이 민감한 성감대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체위와 싫어하는 체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등 8개의 문항이 유의미한 부하치를 보였다. 이들 문항은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를 인식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요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적 자기 인식’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것의 전체 변량은 9.58%에 해당한다.

제 3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6.26%로, ‘외모와 만족스러운 성관계는 상관이 높다’, ‘남자는 여자를 리드해야 한다’, ‘완벽한 성관계는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관계는 오래할수록 좋다’ 등 9개의 문항들이 적재되었다. 이들은 성생활에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성 및 성관계에 관한 신념들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성신념’으로 요인명을 정하였다.

제 4요인은 전체 5개의 문항이 유의미한 부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설명변량은 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의 적재 문

항을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성관계의 거부의사를 밝혀도 배우자가 여러 이유를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할 때 당신은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체위를 배우자가 원할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성관계를 원하지만 배우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평소 어떻게 하십니까?’ 등으로 성생활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다. 따라서 이들 문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명을 ‘성생활 갈등 해결능력’으로 정하였다.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성지수 측정점수가 일관적이고 안정적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반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이장주, 2002). 그 결과(표 2참고), ‘성적 자기 탐색 능력’ 문항간 상관은 .833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 인식’은 상관계수 .607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성신념’과 ‘성생활 갈등 해결 능력’ 역시 .592와 .435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지수 척도의 요인

표 2.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의 반분 신뢰도

	요인 1 성적자기탐색능력	요인 2 성적자기인식	요인 3 성신념	요인 4 성생활 갈등 해결능력
요인1: 성적자기탐색능력	.833***			
요인2: 성적 자기 인식		.607***		
요인3: 성신념			.592***	
요인4: 성생활 갈등 해결능력				.435***

\*\*\*  $p<.001$



들이 일관성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의 타당도와 효율적  
가능성 검토

타당도 검토

성지수 척도의 동시적 준거관련 타당도 (concurrent criterion-related validity)를 조사하기 위해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 관련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성지수와 결혼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을 보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바, 성지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역시 높아짐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성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도 척도와의 상관계수 -.516, .48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지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며, 성생활 불만족도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지수와 성생활 스트레스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상호구성적 성지수의 기능적 효율성

성생활 만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그것과 성행동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행동이 성생활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더라도, 성생활 만족을 이끄는 부부만의 성행동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만족적·부부특수적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며, 부부 성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을 위해서 성행동보다 더욱 유효한 변인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성행동과 성지수(상호만족적·부부특수적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데 필요함 심리적 능력 척도)가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 관련 척도를 설명하는 고유설명변량을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해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에 대한 이들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는 성지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불만족도, 성생활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성지수의 순수 설명변량을 살펴보기 위해 1단계로 연령과 결혼기간을 enter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는

표 3.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와 관련 척도들 간 상관관계

	성지수	결혼 만족도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불만족도	성생활 스트레스
성지수	1.000				
결혼만족도	-.283***	1.000			
성생활만족도	-.516***	.532***	1.000		
성생활불만족도	.481***	-.439***	-.814***	1.000	
성생활스트레스	.397***	-.322***	-.682***	.743***	1.000

\*\*\*  $p < .001$ , \*\*  $p < .01$ , \*  $p < .05$

표 4. 상호구성적 성지수와 성생활 관련 척도의 위계적 회귀분석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불만족도			성생활 스트레스		
		B	$\beta$	$\Delta R^2$	B	$\beta$	$\Delta R^2$	B	$\beta$	$\Delta R^2$
	$R^2$	.440			.389			.197		
1단계	연령	-.004	-.071	.038**	.007	.095	.042**	.000	-.002	.004
	결혼기간	.001	.245**		-.002	-.270**		.000	-.061	
성지수 변인	요인 1	-.244	-.436***	.306***	.311	.408***	.255***	.268	.262***	.135***
	요인 2	-.158	-.143**		.170	.114#		.144	.072	
	요인 3	-.123	-.144**		.162	.139**		.294	.189***	
	요인 4	.070	.104*		-.061	-.066		-.107	-.088	
성행동 변인	횟수	.102	.226***	.095***	-.134	-.218***	.093***	-.112	-.136*	.057***
	시간	-.014	-.050		.012	.033		.040	.079	
	체위 수	.020	.056		-.026	-.055		-.102	-.165**	
	오르가즘	-.052	-.149**		.077	.161***		.042	.065	

\*\*\*  $p < .001$  \*\*  $p < .01$  \*  $p < .05$  #  $p < .06$

성지수 척도를 구성하는 4개의 요인을 enter 방식으로 투입함으로써 성지수의 순수설명량을 구하였다. 3단계는 성관계 횟수, 성관계 시간, 체위 수, 오르가즘 경험 등 성행동과 관련된 4개의 문항을 enter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2단계에서 성지수 요인이 순수하게 설명하는 변량은 30.6%이며, 이때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양호하였다( $F=25.23$ ,  $p < .001$ ). 3단계에서 성행동 변인이 회귀식에 추가되었을 때 이것이 설명하는 고유한 설명 변량은 9.5%로 모델 적합도는  $F=22.29$ 로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F값이 소폭 감소하였다. 투입된 변인들이 각각 설명하는 고유한 설명변량을 통해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는 바, 성지수가 성행동에 비해 약 21.2% 가량 설명력이 더 높

음을 알 수 있다. 성생활 불만족도에 대한 이들의 순수설명변량을 살펴본 결과, 성지수는 25.5%, 성행동은 9.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이 투입되어짐에 따라 변화하는 모델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성지수의 경우 회귀모형이 나아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성행동의 설명 변량 9.33%는 회귀모형을 개선시키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독립변인 각각의 설명변량과 베타값 그리고 F값을 종합해보면, 성생활 불만족에 있어 성행동에 비해 성지수가 더 강력한 설명변인임을 알 수 있다. 성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성지수의 고유 설명 변량은 13.5%이며, F값은 7.83으로 .001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다. 또한 성행동은 5.7%의 변량을 순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01로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회귀모형을 개선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성지수가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불만족도, 성생활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있어 성행동에 비해 상대적 기여도가 더욱 높은 변임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성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불만족도를 해결하며, 성생활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성적 자기탐색 능력’, ‘성적 자기인식’, ‘성신념’, ‘성생활 갈등 해결능력’ 등의 요인이 성행동에 비해 더욱 유효한 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상호만족적·부부특수적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와 기능적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조사(개방형 설문과 FGI)와 문헌조사 결과 추출한 5가지의 성지수 구성요인(성적 자기의 인식, 성적 자기의 표현, 성생활 갈등해결능력, 올바른 의사소통, 성신념 등)에 대한 측정문항을 구성하고, 이들 문항의 잠재적인 요인의 수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출된 잠재요인을 바탕으로 이것의 타당도와 효율적 기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를 구성하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추출되었는 바, 이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41.09%에 해당한다. 제 1요인은 ‘성적 자기 탐색 능력’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자신의 성적 자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

성되었다. 전체 설명변량은 20.08%에 해당한다. 제 2요인은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를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성적 자기 인식’요인으로 설명변량은 9.58%이다. 제 3요인은 ‘성신념’ 요인으로 성생활에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 및 성관계에 관한 신념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설명변량은 6.26%에 해당한다. 제 4요인은 ‘성생활 갈등 해결 능력’으로 성생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적재되었다. 전체 설명변량은 5.17이다. 이들 요인의 내적 일치도와 반분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양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기존 연구문헌에서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올바른 의사소통’과 관련한 문항들이 성생활 갈등해결능력으로 흡수되거나 제거된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2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성생활 갈등상황에 관한 질문과 보기를 살펴보면 특정한 성생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회피, 소극적·적극적 행동 이외에 언어적 반응(칭찬, 불만 토로, 구체적인 대화 시도 등)이 제시되고 있어<sup>5)</sup>성생활 갈등해결능력 요인이 성적 의사소통 요인의 특성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성생활 갈등해결능력과 관련한 문항의 예를 보면, ‘당신보다 배우자가 먼저 오르가즘에 도달한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 나도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② 자위행위를 통해 오르가즘에 도달한다, ③ 안거나 키스하는 것과 같은 후회를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④ 씻으로 가거나, 옷을 입는 등 성관계를 끝낸다, ⑤ 배우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편잔을 준다 등의 보기가 제시되는데, 여기서 보기 ①과 ⑤는 부부간 성적 의사소통 유형을 반영하고 있음

다음으로, ‘배우자가 성생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평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배우자에게 성생활의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평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당신은 성생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배우자에게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문항들로 구성된 성적 의사소통 요인은 구체적인 성생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묻기보다 부부간 성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유무와 표현방식, 소통의 원활성 정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지수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의 동시적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성지수와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지수 척도가 상호만족적 성적 스크립트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요인을 제대로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상호구성적 성지수의 기능적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불만족도, 성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성지수의 고유설명변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들 변인에 대한 성행동과 성지수의 고유설명변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지수가 성행동에 비해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불만족도, 성생활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더욱 강력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성행동은 부부간 성생활 만족도 제고 및 불만족도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행동보다 성지수가 성생활 만족도, 불만족도, 성적 스트레스 등을 더 잘 설명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부부 성생활 개선을 위한 개입방안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간과해 왔던 성적 자기탐색능력, 성적 자기인식, 성신념, 성생활 갈등해결능력 등과 같은 심리적 능력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성지수 척도는 부부마다 성적 자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성행동적 측면들도 부부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MacNeil & Byer, 1997), 부부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성적 스크립트를 함께 구성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성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전제하고, 이를 행하는 여부에 따라 성생활 만족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기존의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들과는 구별된다. 성지수 척도는 부부간 상호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공구성(共構成)해나가는 과정과 이를 위한 심리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척도이다.

둘째, 성지수는 부부가 상호만족적·부부특수적 성적 스크립트를 공구성(共構成)하기 위해 성적 자기를 탐색하고, 개발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성생활을 역동적이며, 상호작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존의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들도 성생활의 상호작용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척도구성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본 척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성지수는 부부가 상호만족적 성적 스크립트를 공구성하느냐의 여부는 서로의 감정과 사고, 행위를 주고 받는(tick-tack) 상

호작용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척도 구성에 반영하였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성생활 만족 척도가 성행동에 대해 ‘관계시 배우자는 충분한 성적 자극을 하지 않는 편이다’와 같이 묻는다면 이와 대칭되는 성지수 척도 문항을 만든다면 다음의 6문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첫째, ‘당신은 배우자가 어떤 성적 자극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둘째, ‘당신은 자신이 어떤 성적 자극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셋째, ‘당신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성적 자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넷째,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적 자극을 배우자에게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다섯째, ‘배우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성적 자극을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하니까?’ 여섯째, ‘배우자가 충분한 성적 자극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등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성생활을 평면적/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해왔던 현실을 극복하고 이를 상호구성적이며, 역동적인 관계적 측면에서 다루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의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잘못된 성행동(예컨대 배우자는 난폭하다, 성기법에만 치중한다, 충분한 자극을 하지 않는다 등)에 상당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성생활의 문제영역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지수는 상호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문제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하기보다

자신의 상호작용 유형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심리적 능력 영역을 발견하여,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능력을 더 개발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성지수 척도는 실제 성생활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상호만족적 성적 스크립트를 형성하는데 있어 부족한 자신의 심리적 능력 요인을 진단해주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하는데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self)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좋아하는 것/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향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생활이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자기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는 성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은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장순복, 1996), 성생활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Conrad & Milburn, 2001).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 자기에 대한 논의는 일반인들이 성에 대해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배우자의 성적 자기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지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지수 문항의 잠재적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와 성지수의 타당도와 기능적 효율성을 측정을 위한 자료를 한 설문지로 동시에 회수하였다. 따라서 성지수 척도의 타당도와 기능적 효율성을 검

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후속 연구를 통해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지수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후자가 성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 상호구성적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였고, 성생활 만족 정도 및 상태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지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과의 상관을 통해 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것은 분명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보수적인 성적 스크립트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보고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성지수 정도와 상호만족적/부부특수적 성적 스크립트로 인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보고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그것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척도의 타당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지수는 기존의 성생활 만족 관련 척도와는 달리 부부 간의 성생활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응답을 서로 매칭시켜 쌍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자는 성적 의사소통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상호만족적·부부특수적인 성적 스크립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구성된 성지수에서는 성적 의사소통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문항분

석을 통해 제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문항이 다른 성지수 요인들과 변별력없이 구성되어졌거나 문항 자체가 올바른 성적 의사소통 방식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즉, 설문지 배포 및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자와 연고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강원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기혼자들을 추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분포를 고려함으로써 본 척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권석만 (2003).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고정애 (2004). 기혼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관련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남, 장순복, 강희선 (1997). 여성의 성만족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7(4), 753-764.
- 김연, 유영주 (2002). 기혼 남녀의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 간호관계학회지, 7(1), 1-18.
- 김영기, 한성열, 한민 (2008). 부부의 자존감 수준과 부부 성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03-119.
- 김요완 (200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지식 수준의 성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학술

- 논집, 33, 170-223.
- 김임영 (2002).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신혼기 부부의 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 (2003).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정인 (2000).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심리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77-397.
- 김효연 (1996). 성생활 만족도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선 (2008). 중년후기 남녀유배우자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성생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1), 49-67.
- 남영주, 옥선화, 김지애 (2006). 삼, 사십대 기혼남녀의 성적 의사소통과 결혼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44(2), 113-126.
- 문혜숙 (1993). 부부적응과 성적 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연구: 도시 중산층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홍세 (1989). 사랑, 성의 정신역동, 한국임상성학회지, 1(1), 23-30.
- 배정원 (2003). 유쾌한 남자, 상쾌한 여자: 배정원이 들려주는 행복한 성 이야기. 서울: 가교출판.
- 서선영, 최혜경 (2004). 한국기혼남녀의 부부간 사랑과 성생활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81-200.
- 유영주, 이창숙 (2002). 부부행복찾기 I, II, III. 서울: 신정.
- 이경옥, 김영희 (2003).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7), 39-58.
- 이윤수 (1998). 한국여성의 성의식 및 성실태. 한국성의학연구소.
- 이영실 (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주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숙, 문정순 (2000). 기혼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396-414.
- 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척도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모 외 (1999). 인지심리학. 서울: 학지사.
- 장순복, 강희선, 김숙남 (1998). 기혼여성의 성만족. 대한간호학회지, 28(1), 201-209.
- 장휘숙 (2002). 여성심리학. 서울: 박영사.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성묵 (2000). 사랑은 진할수록 아름답다. 서울: 명진출판.
- Abramson, P., & Mosher, D. (1975). Development of a measure of negative attitudes towards masturb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485-490.
- Ackerman, M. D., & Carey, M. P. (1995). Psychology's role in the assessment of erectile dysfunction: Historical precedents, current knowledge and method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6), 862-876.
- Ard, B. N. (1977). Sex in lasting marriage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ex Research*, 13, 274-285.
- Barnes, G. E., Malamuth, N. M., & Check, J. V. P. (1984). Personality and Sexu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159-172.

- Bell, A. (1997). *The Mind and Heart in Human Sexual Behavior*. NJ: Jason Aronson.
- Bridges, S. K., Lease, S. H., & Ellison, C. R. (2004). Predictiong Sexual Satisfaction in Women: Implic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 158-166.
- Breakwell, G. M., & Millward, L. J. (1997). Sexual self-concept and sexual risk-taking. *Journal of Adolescence*, 20, 29-41.
- Byers, E. S., & Demmons, S. (1999).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Self-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2), 180-189.
- Byers, E. S., Demmons, S., & Lawrance, K. (1998). Sexual satisfaction within dating relationships: A test of the interpersonal exchange model of sexu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257-267.
- Conrad, H., & Milburn, M. (2001). *Sexual Intelligence*. NY : Three Rivers Press.
- Cox, F. D. (1990). *Human intimacy: The family and its meaning*. San Francisco: West Publishing Company.
- Doddridge, R. (1987). Factors related to decline in a preferred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 among young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60, 391-395.
- Donnelly, D. A. (1993). Sexually Inactive Marriag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0(2), 171-179.
- Ferroni, P., & Taffee, J. (1997). Women's emotional wellbe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sexual needs. *Journal of Sexual and Marital Therapy*, 12, 127-138.
- Garcia, L. T. (1999). The Certainty of The Sexual Self-Concept.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8(4), 263-270.
- Garcia, L. T., & Carrigan, D. (1998). Individual and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self-percep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10, 59-70.
- Giddens, A. (2001).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운경, 황정미 역), 서울: 새물결.
- Greenblat, C. (1983). The salience of sexuality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Journal off Marriage and the Family*, 45, 277-288.
- Hatfield, E., Yraupmann, J., & Lamhert, P. (1982). Equity and sexual satisfaction in recently married coupl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8, 18-32.
- Heaven, P. C., Fitzpatrick, J., Craig, F. L., Kelly, P., & Sebar, G. (2000).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sex: preliminary finding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1133-1141.
- Hendrick, S., & Hendreck, C. (1987).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 *Journal of Sex Research*, 23, 502-526.
- Herold, E. S., & Way, L. (1988). Sexual Self-Disclosure Among University Woma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4, 1-14.
- Hudson, W. W., Harroson, D. F., & Crosscup, P. C. (1981). A Short Form Scale to Measure Sexual Discord in Dyadic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17(2), 157-174.
- Jasso, G. (19985). Marital coital frequency and the passage of t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50, 224-241.
- Jones, S., & Hostler, H. R. (2001). Sexual Script Theory: An Integrative Exploration of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Sexual Self-Defini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0(2), 120-130.
- Kingsberg, S. A. (2002). The Impact of Aging on Sexual Function in Women and Their Partne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1(5), 431-437.
- Kirkpatrick, S. J. (1980). Human sexuality: A survey of what counselors need to know.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 276-282.
- Leigh, B. C. (1989). Reasons for having and avoiding sex. *Journal of Sex Research*, 26, 176-185.
- MacNeil, S., & Byers, E. S. (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problems,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6(4), 277-283.
- Marsiglio, W., & Donnelly, D. (1991). Sexual intercourse in later life: A national study of married persons. *Social Science*, 46, 338-344.
- McKenna, K. Y. A., Green, A. S., & Smith, P. K. (2001). Demarginalization the Sexual Self.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8(4), 302-311.
- Shafer, A. B. (2001). The Big Five and Sexuality Trait Terms as Predictors of Relationships and Sex.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 313-338.
- Snyder, M., Simpson, J. A., Gangestad, S. (1986). Personality and sexu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81-190.
- Strong, B., & DeValult, C. (1994). *Human Sexuality*.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Tavris, C. (2001). *The mismeasure of woman*.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히스테리아 역), 서울: 또하나의 문화.
- Wallin, P., & Clark, A. (1963). A study of orgasm as a condition of women's enjoyment of coitus on the middle years of marriage. *Human Biology*, 35, 131-139.

1 차원고접수 : 2009. 5. 13.

심사통과접수 : 2009. 6. 01.

최종원고접수 : 2009. 6. 26.

## The Study on Developing Co-constructive Sexual Index

**Young Mi Sohn**  
**Myongji University**

**Hyo-Chang Kim**  
**Hakjisa**

Until recent researches, Sexual behavior, sexual functioning and emotional experience were regarded as key factors for satisfying sexual life. While the sexual script theory emphasized on constructing the co-enjoyable and co-satisfying sexual script between couple for it. On the basis of the sexual script theory,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constructive sexual index(for short, the sexual index) that measures and diagnoses psychological abilities essential to the construction of a co-satisfying sexual script. Specifically, pre-studies(open-ended questionnaire, FGI, literature survey) were conducted to explore psychological abilities for satisfying sexual life. As a results, 5 psychological abilities - awareness of sexual self, expression of sexual self, sexual conflict solving ability, sexual communication ability and sexual beliefs - were extracted. Based on this result, main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the co-constructive sexual index and to validate it. Three hundreds and twenty eight married persons(male: 179, female, 198) were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61 sexual index questions, sexual satisfaction scales and 8 sexual behavior questions. First, a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tract constructs of the sexual index from 61 questions. The result were shown that the sexual index had acceptable 4 factors, including exploration ability of sexual self, awareness of sexual self, sexual beliefs and sexual conflict solving ability. Second,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validation of the sexual index. In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sexual index was highly correlated with sexual satisfaction scales and sexual behaviors. Thir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the explanatory variance of sexual index on sexual satisfaction scales was compared to that of sexual behavior to verify the function of sexual index.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exual index was more powerful explanatory variable on them than sexual behaviors. The theoretical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sexual life, sex, sexual satisfaction, sexual index, sexual self, sexual script, sexual belief, communication*

부록 1. 기존척도에 포함된 성생활 만족 및 불만족 요인

요인	하부요인	구체적 문항	
성 행 동	오르가즘	나는 남편과의 성교시 절정감을 느낀다	
		나는 성관계시 성적 극치감에 잘 도달하지 못한다 성행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체위	구강성교는 부부간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경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성행위(자세)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성교시 다양한 체위는 만족감을 더해준다	
		테크닉	나는 남편이 너무 성기법에만 치중하여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못하다 배우자는 성행위시 너무 거칠고 난폭하다 나는 배우자가 좋아하거나 사용하는 성기법을 즐긴다
	애무		성관계 전의 포옹이나 애무는 성관계의 즐거움을 위하여 필요하다 성행위 전 남편과의 애무는 깊은 애정을 더해준다 남편은 나에게 충분한 성적 자극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다
		성관계시간	우리 부부는 성관계시 너무 빨리 서둘러 끝내 버린다 성관계를 가질 때 남편은 여유가 없고 조급하다 남편과의 성교시간은 충분하다
	성관계 횟수		남편과의 성관계 횟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배우자와 성관계를 좀 더 자주 해야 한다고 느낀다 남편과의 성교 횟수는 충분하다
		방해요인/ 촉진요인	남편은 성관계시 성적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다 배우자는 청결을 중시한다 나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관계를 자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 험 정 서		즐거움/재미
		만족감	
성적 박탈감			배우자는 내가 줄 수 있는 성 외에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배우자가 너무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느낀다(집착한다) 나는 배우자가 나를 볼 때 성생활에만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신뢰감	성생활에 있어서 부부 상호간의 질적인 면(존경, 신뢰, 애정 등)이 결핍되어 있다 성생활에 있어서 부부 상호간의 친밀감이 없다 남편에 대한 믿음은 성만족을 크게 한다